

신규·경력교사 간 전보제도 손본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그간 불합리하게 이뤄져 온 신규 교사와 경력 교사 간의 전보제도를 손보기로 해 관심이 쏠린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실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경력 교사는 가까운 곳에, 신규 교사는 먼 곳에 배치됐다. 이로 인해 신규 교사들의 불만이 늘 있어 왔다. 더군다나 특정 지역 기피현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었다.

주로 신규교사들은 무주·진안·

도교육청, 의견수렴 과정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실행
그간 경력교사 가까운 곳에, 신규교사는 먼 곳에 배치
서 교육감 취임 후 강조해온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

장수·임실 등 동부 산악지역이나 고창·부안 등 서부평야지대에 주로 발령이 났다. 반면, 익산·완주·김제 등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에는 대부분 경력 교사들로 채워졌다.

이는 서거석 교육감이 취임 이후 출골 강조해 온 '학생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하다'는 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교원들의 의견을 더 적

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며 "더불어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해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규 교사나 기간제 교사의 경우 지역·학교별 교사 총수를 고려해 적정 인원을 배치하고, 갑작스런 교사 유출을 막기 위해 희망 전보 비율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축소할 예정"이라며 "교사들의 비선호 지역은 이에 순환전보 유예지역에 포함시켜 실거주 교사를 남겨 둘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1월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열심히 일한 교직원에게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농어촌학교 근무 가산점 축소, 도시의 대규모 학교 가산점 신설 등 새로운 인사 기준을 제시했다.

또 5급 사무관에 대해서도 평소의 근무평가만으로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겠다고 했다.

/장은성기자

도내 고교 1학년 학생 3월 연합평가 미 실시

교육과정 원활한 운영 위해

전북 지역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2023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지 않는다.

이는 전라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가 지난 2019년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다. 관련 협약에 의하면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등학교 1학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문화 돼있다.

반면, 경기도와 광주시는 2023학년도부터 전 회차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년에 총 4회 실시된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공동 부담과 합의에 따라 시행된다. 서울시 교육청이 총 주관으로 시행 계획 수립 및 업무 조정을 담당한다.

/장은성기자

교육재정 신속집행 '총력'

도교육청, 올 상반기 중 8263억원 집행키로

전년보다 1748억 증액...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재정 신속 집행에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

2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대상 사업 1조2,713억원 중 상반기 중에 65%인 8,263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도 6,515억원보다 1,748억원 늘어난 금액으로, 적극적인 재정투입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우선,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상반기 사용 दर, 물품 조기 구매, 학교 전출금 적기 교부 등을 통해 민생경제를 안정화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

일 방침이다.

또한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재정집행 점검단을 상시 운영해 소속 기관(부서)의 실적을 점검하고, 더불어 시·군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해 집행 행태를 높일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고물가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교육재정의 신속 집행을 통해 민생안정 및 경기회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에서 연수과정을 가진 전북대 반도체 관련 학과생들.

'세계 최고 연구소에서 연구자 꿈 키우다'

전북대 반도체 관련 학과생들, 지난달 말까지 6주간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서 공동 연구

전북대학교 총장 양오봉(는) 반도체 분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겨울방학 동안 세계 최고 연구소에서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20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6주 동안 반도체과학기술학과 5명, 물리학과 3명, 전자공학부 2명의 학생과 이들을 지도할 교수 1명을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에 보내 국제 공동연구를 진행토록 했다.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는 기초부터 응용 연구 분야까지 나노 및 세라믹 분야에서 세계 최첨단 연구를 이끌고 있는 곳이다. 국내에서 국제 공동연구 협력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파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과학기술학과 김희대 교수를 비롯한 10명의 학생은 이 연구소에서 6주 동안 머물며 공동 연구를 수행했다.

이들은 원자 배열까지 관찰할 수 있는 주사전자현미경(SEM)을 비롯한 다양한 전자현미경(TEM, FIB, XCT)의

사용법을 익혔다. 학생들은 실제 조개 껍데기 샘플을 가져와 가공 작업(Sample plate polishing)을 거쳐 가공된 조개 껍질의 표면을 엑스레이 현미경(X-ray microscopy)을 이용해 측정하고, 이 데이터를 실제 3차원 이미지로 모델링(X-ray image 3D modeling)해서 구현했다. 이 같은 연구를 통해 향후 다양한 생체 샘플들을 가공해 엑스레이 현미경으로 이미지로 시각화 할 수 있는 연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초음파(Ultrasound)를 통한 실제 물체 속 균열(Crack) 및 결함(Defect)을 눈으로 보지 않고 감지하는 비파괴적 연구 방법을 익히기 위해 3차원 프린트(3D printer) 기계를 직접 다루보는 시간도 가졌다.

학생들은 인공뼈와 인공 두개골, 안면 골절용 마스크 등을 직접 디자인해보고 이 디자인된 모델을 3차원 프린트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관찰했고, 이렇게 제작된 제품이 향후 어떻게 실

제 의료 현장에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했다. 그리고 바이오물질들을 이용한 응용으로 빛에 강하게 감응하는 플라즈모닉(plasmonic)을 활용한 바이오센서를 직접 제작하는 등의 연구 성과도 올렸다.

박종현 학생(반도체과학기술학과)은 "겨울방학을 세계 최고 연구소에서 반도체 분야 최신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프로젝트에도 직접 참여함으로써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며 "연구자가 되겠다는 막대한 꿈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의 소중한 경험이 꿈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도교수와 함께 참여한 김희대 교수는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국제적 수준의 첨단 연구 방법과 내용일 익힐 수 있었다"며 "학생들에게 연구에 대한 관심과 포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학 메인 홈페이지와 더불어 개교 100주년 및 부서별 전용 홈페이지를 마련, 자료 현행화가 즉시 가능한 웹 정보 통합관리체제를 확보해 최신화된 클라우드 정보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접근성 강화를 위해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어떤 환경에서 접속해도 기기에 최적화 된 비율로 보이는 반응형 웹이 적용됐다.

정보전산원 관계자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이용자의 편의성 강화와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개발됐으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본인 인증 로그인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박병준 총장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면서 "지속적인 기능 개선과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은 공·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3~5세 어린이집에도 체험활동 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북형 유·보 통합 '첫걸음'

유아교육진흥원, 3~5세 어린이집에도 체험시설 제공키로

전북형 유·보통합을 위한 첫걸음을 뗀다. 전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원장 강혜정)은 공·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3~5세 어린이집에도 체험활동 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아교육진흥원은 도내 유아기 바른 인성을 갖춘 건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사립유치원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지난 2016년부터는 도내 어린이집 유아에게도 체험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다.

이에 올해도 매월 둘째·셋째 주 월요일 정규적으로 어린이집 유아기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았다.

한편 지난 13일 어린이집 유아 132명의 체험활동을 시작으로 상반기에만 1,680명의 어린이집 유아가 체험학습에 참여하기로 했다.

강혜정 원장은 "어린이집 유아들에게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유·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점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내일의 주역이 될 유아에게는 꿈을, 교원에게는 지혜를, 학부모님에게는 나눔을 교육공동체에게는 공감으로 다가가 유·보통합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도교육청, 국제교류수업 학교 협의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일 2층 강당에서 국제교류수업 학교로 선정된 도내 초·중·고교 41곳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제교류수업 학교 운영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업 현장 중심의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지구촌 공동체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갈 미래역량을 지닌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한국학교-해외 학교 매칭 방안 △온라인 공동수업 지원 방안 △학생 해외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국제교류수업 시범 운영 사례 △교류 국가별 분담 토의 등을 진행했다.

운영인 정책기획과장은 "항후 초·중·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수업 중심의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교육과정 다양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미래교육의 가치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주비전대, 대학중고교

연계 인재육성사업 선정

전주비전대학교(총장직무대행 우병훈)는 2023년 지역 꿈은 대학·중고교 연계 인재육성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대학의 풍부한 인적·역량 및 시설 지원을 활용해 인구감소 지역 소재 중·고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및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주비전대에 따르면 2억2,900만원을 지원받아 남원, 김제, 고창 등 7개 중·고교에서 비전+ 창의융합 AI 메이커톤 프로젝트, 자율주행 자동차 키트 제작 및 주행 실습 등 18개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앞두고 삶의 질 방향 모색

원광대 교수협, 내일 특자도법 실체구성 주제 정책토론회 특자도 관련 지역발전 전략·교육의 대응 등 주제 발표도

원광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전북특별자치도법 시행에 따른 도민 삶의 질 향상 방안을 찾아나간다.

20일 원광대 교수협은 오는 22일 교내 송산기념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실체구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24년부터 시행되는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따른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위해 기획됐다.

토론회 제1세션에서는 전북대 교수협의회장인 김동근 교수가 '전북특별자치도와 대학혁신도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제2세션에서는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이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현황과 실체구성'을 주제로 발제한다.

원도원(원광대) 교수는 제3세션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의미와 지역발전 전략', 천호성(전주교대)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교육의 대응'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이후 제5세션에서는 원광대 교수협의회장인 김선광 교수가 사회를 맡아 종합토론을 펼친다.

김선광 협의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법 시행에 따른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